

VOL.07

2022 | 여름

충북학누리



제천 의림지 영호정 (1930년대)

충북학누리

Vol.07 | 2022 여름

CONTENTS

- | | | | | | |
|----|--|----|----|--|----|
| 01 | 여는글
충북 미래방정식, 충북학이 답이다
조성화 | 3 | 05 | 충북의 옛이야기
왕을 담은 충북 지명전설
이상희 | 20 |
| 02 | 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공간
제천 의림지의 여름 풍광
김종수 | 5 | 06 | 충북 문화예술 여행
충북의 영화 이야기 2
윤정용 | 25 |
| 03 | 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
우리 동요의 거대한 뿌리, 정순철
정민 | 10 | 07 | 충북학연구소 소식 | 32 |
| 04 | 충북 재발견
청주시민의 최초 극장, 영좌
임기현 | 17 | | |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7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2. 07. 20.

충북 미래 방정식, 충북학이 답이다

조성화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 글자를 딴 조선시대 8도 지방행정구역 명칭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아우르는 호서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폭정을 비판하던 내시 김처선이 청주목 전의 사람이란 이유로 연산군은 청주를 빼고 공주를 넣어 충공도로 삼았고, 명종 때는 정미사화로 충주가 현으로 강등되며 청주와 홍성을 넣어 청흥도로 삼았으며, 광해군 때는 충주 유인발 난으로 공주와 홍성을 수부로 삼아 공흥도, 인조는 공주에서 역모가 있어 반역항이란 이유로 공주를 빼고 다시 청주를 넣어 홍청도로 부르는 등 본래 명칭 충청도 이외에 여러 이명으로 불리는 수난기를 겪었다.

충청권 내부 요인이 아니라 이웃 한양의 정치지형과 밀접히 연관된 사건들의 리트머스로 나타난 주변지역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술한 충청내 수부 거점 변경은 충북 고색을 무채 보편성에 가깝게 했다.

삼국시대 충북은 백제와 신라 고구려 삼국 최일선의 치열한 전장으로서 밤낮을 달리해 이웃 마을을 가르는 국경선이 그어지기도 했다.

마한 목지국 땅이던 충북 청주는 백제 상당현, 중원지역으로 올라오는 신라 및 고구려 남진 루트에 낀 삼국 영향권을 들락거리다 나제동맹시기 백제땅을 거쳐 통일신라 서원경이 됐다.

충북을 전장으로 하는 세력다툼은 지금까지 여전하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양분된 선거판에서 충청도는 양쪽 권역을 가르는 캐스팅보트 권한을 행사하면서 특히 청주는 진영심판자로서 중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87년 13대 대통령 직접선거제 이후, 충북 선거는 전국 선거결과와 그대로 일치했고 지난 3월에 치러진 2022년 대선은 더욱 근접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후보 전국 득표율은 47.83%대 48.56%로 0.73%p의 초박빙을 보였다.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은 45.87%와 50.10%로 4%p차이를 보였고 청주 흥덕구는 47.51%대 48.13%로 0.62%p 차이를 보여 전국 결과 치와 단 0.11%p차이에 불과한 극정밀 바로미터가 됐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각 자기 진영 후보들간 공천싸움이 있을 뿐이나, 충북은 진영 내 공천경쟁에 이어 상대 진영과 격렬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진영을 달리한 주민들간 표대결이 반목으로 분출되는 곳이기도 하다. 명청도 혹은 핫바지 등의 지역감정조장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는 배경이며 지역 특질이 없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다.

전국 7%의 작은 면적을 가진 도세에 인구비중은 3%, 금융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북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충청권 공동블록이던 세종과 대전은 독자세력으로 더 성장해 갈것이 뻔하다.

충북은 어떤 위치, 어떻게 버텨내야 할 것인가?

우리 지역 과거와 현재를 고민하고 다듬고 기록하며, 비전을 제시할 핵심 주체는 누구여야 할까.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지만 과연 지역에 기초한 충북 특질은 어떤 것일까. 민선 8기를 맞아 꼼꼼히 그리고 심각히 고민할 충북학 과제다.

정치권을 둘러싼 자치제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다. 원조경제기와 산업기를 지나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으로도 성장했다. 지방 굴뚝공장을 담보로 중앙과 국가를 우선했던 과거를 딛고 지역 가치를 들추고 양질의 주민 삶을 챙겨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미 현실화된 시군 소멸이 곧 충청북도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다면 충북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충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지역소멸은 문화의 소멸이며 지역사의 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각 곳에서 경쟁적으로 지역학을 도입하는 이유다.

‘충북학’은 이미 태동됐다. 그러나 성장은 멈췄고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여전히 썰렁하다. 충북학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꿈을 하나로 담아내는 꿈단지, 미래로 향하는 비전의 뜻대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던 탓인지 저만큼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도민 자긍심을 높이고 여유로운 삶을 여는 지역공동체 구심역할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줘야 할 충북학이다. 혈연지연중심의 근시안적 충북학을 깨고 흑묘백묘 충북을 키워갈 수 있는 다문화 기반의 충북학으로 확장, 새롭게 지역 바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거시적 범위설정도 필요한 때다.

충북의 문화가 다른 지역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따져 우리 특질을 빛내고, 이웃한 충청학 및 국가 단위 한국학 속의 충북을 찾아 내, 글로벌 문화다양성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도 크다.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 시군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연구소 설립이 논의되는 만큼 충청북도와 시군지역을 지역학으로 연결짓기 위한 법규 및 자원공유 등 충북학 위계위차 찾기도 늦출 수 없다. 충북도정 및 주민 역사를 기록하는 냉철한 사관의 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관련 영역 연구 및 자료요구가 늘고 주민들의 높아진 향토사의식, 역사문화화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문화산업이 지역경제 한 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충북학 성과의 원소스를 제공할 인력 및 매체와 하드웨어 구축도 시급하다. 그러나 이 모든 충북학의 활동과 지원은 법제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

충북학 연구 기능과 범위를 확실히 규정하고 연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인력과 예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치에서 벗어난 긴 호흡의 충북학 연구성과를 바랄 수 없으며, 충북학과 연계되지 않은 장밋빛 일회성 지역살리기 공약과 구호도 한계가 있다. 충북학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충북의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고 주민 삶의 질을 챙기는 한편 장단기 연구계획을 수립해 충북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큰 틀의 국가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려는 충북학 로드맵 완성이 지자체 정책의 큰 축을 차지해야 한다.

충북학연구소를 포함 전국 20개의 지역학 연구소가 운영중인 가운데 충북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데다 겸임소장을 포함해 상근 두명의 인력이 현재 일을 감당하는데다 한 해 예산은 몇 권의 책 발간과 세미나 개최에 만족한 상황이다. 충북 민선 8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학으로 충북학이 성장하길 바란다.

도와 도민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고 충북의 미래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답안지, 곧 충북학에 있다.

제천 의림지의 여름 풍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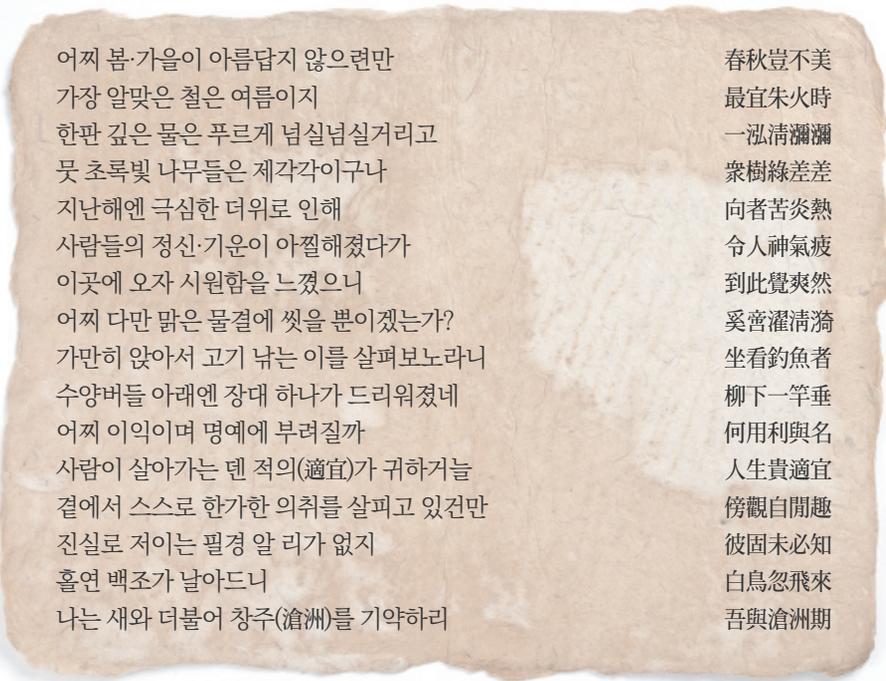
김종수 (세명대학교)

여름철이 제격인 의림지

제천시 모산동에 소재한 의림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다. 의림지는 한반도의 유구한 농경문화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자, 명승이기도 하다. 의림지는 풍부한 담수 용량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 환경, 그리고 산곡(山谷)에 자리 잡은 천혜의 입지 조건 등으로 제천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기능해 왔다. 지난날 의림지는 당대의 이름난 명사들과 무수한 유람객들이 즐겨 찾았던 호서권의 답사 1번지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경승지로서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과시하기도 했다. 이는 의림지를 시재(詩才)로 삼은 술한 조선조 사대부들이 남긴 다양한 시 작품들을 통해서도 그 실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림지를 대상으로 한 시작(詩作)들은 춘하추동 사계를 망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을·겨울철보다는 봄·여름 두 계절이 더 선호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봄·여름철에 의림지 일대의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들을 쫓아서 형상화하기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계절도 장마철을 맞이하여 후텁지근한 여름으로 접어든 상태이므로, 차제에 의림지의 여름 풍광을 시인·묵객들이 남긴 작품들을 통해서 완상해 보기로 한다.

일단, 붉은 햇빛의 계절인 여름철의 의림지를 극구 예찬하였던 학고(鶴臯) 김이만(金履萬, 1683~1758)의 「의림지, 주남 류간의 시에 차운하여[義林池, 次柳南潤韻]」라는 오언고시 한 수부터 음미해 보도록 한다.



김이만의 부친은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역임한 단곡(檀谷) 김해일(金海一, 1640~1691)로, 본디 지금의 경북 예천에서 세거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김해일은 당화(黨禍)의 와중에서 호서권 유람에 나섰다가 제천의 산수에 반한 끝에 이주하였기에, 아들인 김이만은 제천 2세에 해당한다. 자택이 의림지와 인접한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기수로 이 공간을 찾았던 진정한 마니아였다. 『학고집』에 수록된 『산사(山史)』의 <의림지> 항목이 잘 방증해 주듯이, 김이만은 전 근대 시기에서 의림지와 관련하여 가장 풍부한 기록을 남긴 실증적 저술가였다. 그런 김이만이 보기에 의림지의 경우, 봄·가을보다 여름 한 철이 훨씬 제격인 이유는 넘실거리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각양각색의 나무들, 그리고 무더위로 지친 고을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힐링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의림지 전경

낚시질과 고기잡이, 어촌의 일상

한편 김이만은 수양버들 그늘 아래에서 긴 장대를 드리우고 낚시질에 열중하고 있는 강태공을 통해서 세속적 부귀영화가 덧없는 꿈에 불과하다는 자각을 행한 후에, 자신의 '적의' 철학을 언뜻 선보이기도 하였다. 기실 만족할 줄을 아는知足(知足)과 그칠 데를 아는지(知止)라는 중층의 의미를 간직한 김이만의 '적의' 철학이란, 1694년(숙종 20)에 유발된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로 극심한 정치적 피해의식을 감내하면서 형성된 내면의 트라우마가 빚어낸 측면도 없지 않다. 때문에 관찰자인 자신의 등장을 눈치 채지 못한 채 낚시에만 몰입하는 낚시꾼의 동태를 통해서, 즉각적인 적의 철학의 호출(呼出)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용두산을 배경으로 한 의림지의 전경을 가장 잘 묘사한 이방운(李昉運, 1761~?)의 「의림지」에도 만발한 수양버들 아래에서 낚시 삼매에 빠진 낚시꾼의 모습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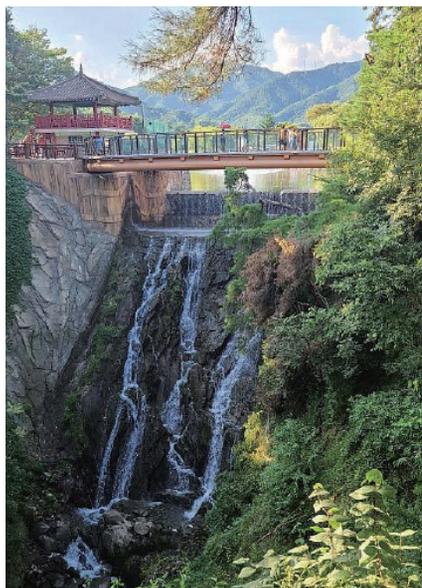
▲이방운, 「사군강산삼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첩 중의 <의림지>
(국민대박물관)

위의 그림 속에는 거룻배를 이용해서 고기잡이를 시도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도 발견된다. 실상 18세기 무렵을 전후로 해서 의림지 주변에는 소규모 어촌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어촌이 풍족했던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양과 질 두 측면에서 탁월한 식용거리를 제공했던 의림지의 명산(名産)인 순채(蓴菜)도 어촌 형성에 한몫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순채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제사상에도 올랐으리만큼 꽤나 용도가 다양했다. 아무튼 김이만의 <의림지, 주남 류간의 시에 차운하여>와 이방운의 그림인 <의림지>는 낚시질과 고기잡이가 의림지의 여름철 일상을 장식했음을 알려준다. 심지어 정사를 뒷전으로 한 채 고기잡이 놀이를 위해 제방을 터뜨린 한심한 현감까지 등장했을 정도니, 의림지에서의 고기잡이가 얼마나 무성했고 또한 애호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지암(止庵) 이철보(李喆輔, 1691~1770)가 <의림지>라는 시를 통해서 “태수(太守)[현감]는 낚시대를 잡고 소나무 아래에 앉았고, 어부(漁人)는 닻줄을 매고 수양버들 속에서 노래하네!”라고 읊조렸던 것은, 낚시와 고기잡이로 들쭉했던 지난날 의림지의 여름 풍경을 재차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구한말 개화파 정치인의 한 사람인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자신의 시집인 『습유만음(濕遊漫吟)』에 수록된 작품인 <의림지>를 빌려서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기술해 두었다.

십여 리 저수지 속의 일립정	十里陂塘一笠亭
키 작은 숲 낮은 나무가 석양 물가에 있네	短林低樹夕陽汀
쇠 낚시로 낚아챈 붕어 쌍으로 흰빛 드리우고	金鉤引鯽雙垂白
얼음잎 솟은 순채 마디마디 푸르름 머금었구나	冰葉抽蓴寸裹青
연자암에 제비 올 때는 꽃 세상	巖鷺來時花世界
동굴 속 용 돌아가는 곳엔 비의 신이 영험하여라	洞龍歸處雨神靈
산 집의 태반은 어부들이 살아서	山扉半是漁人住
은은한 뱃노래가 물 너머에서 들려오누나	隱隱舷歌隔水聽

**신비한 장관을
연출하는
홍류동과 용추폭포**



▲홍류동 용추폭포

용폭(龍瀑)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던 홍류동(紅流洞)의 용추폭포가 연출하는 장관이란 여름철 의림지 전경 중에서 단연 백미로 칭할 만하다. 본디 홍류동은 신월산의 끝자락으로 지금과 같은 계곡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언젠가 의림지의 배수구를 홍류동 방면으로 틀면서부터 엄청난 수량과 수압으로 인하여 황홀한 골짜기가 형성되었고, 덩달아 거대한 폭포가 약 30m 아래로 직하하는 일대 장관을 내뽐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류동과 용추폭포는 의림지가 최초로 축조된 시기를 둘러싼 의론, 곧 이른바 의림지 시축설(始築說)의 비밀을 간직한 신비스러운 역사적 공간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김이만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연초재(燕超齋) 오상렴(吳尙濂, 1680~1707)은 <창랑몽모산별업

십육경소지(滄浪翁茅山別業十六景小識)>라는 산문체 작품을 빌려서 아래처럼 생생하게 증언해 두었음이 눈길을 끌게 한다.

홍류동은 곧 임지(林池)[의림지]에서 넘쳐난 물결이 흘러나오는 입구이다. 그 처음에는 언덕과 산이 서로 접했던 탓에, 골짜기가 있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입구로부터) 급하게 흐르는 물결들이 세게 부딪치고 씻김으로 인하여, 깎이고 파헤쳐서 빈 골을 이루어, 입을 벌린 듯한 하나의 동천(洞天)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낭떠러지 언덕은 가파르게 깎이는데, 수풀 우거진 골짜기는 깊고 아름답다. 고요히 우거진 삼림의 시원하고 으스스한 모양이란, 마치 양명(陽明)의 구곡(句曲) 사이에서 노니는 것만 같다. 또 졸졸 흐르는 샘물이 있어 숲속 사이에서 나오니, 옥홀(玉笏)이 쟁쟁 부딪치는 듯한 운율이란, 흡사 거문고를 타는 것만 같다. 그 빛깔이 붉은빛이 성한 것은, 곧 붉은 모래가 비추기 때문이니, ‘홍류(紅流)’라는 명칭은 이로 인한 것이다.

오상렴은 출중한 재주를 지녔지만 요절하고야 만 비운의 수재였다. 오상렴은 18세기 초엽의 의림지 일대의 주요 서술단위 16장면을 포착해 둔 <창랑옹모산별업십육경소지>를 통해서 홍류동의 시원을 윗글처럼 밝혀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수승한 경관을 자랑하는 홍류동 위쪽의 오른쪽 공간에 청폭정(聽瀑亭)·홍류정 등으로 불린 정자가 건립되었던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근래에 제천시 당국에 의해 용추폭포에 유리전망대가 설치되면서, 김이만의 시인 <홍류정> 한 수가 복원된 건물 내부에 소개되었다.

여덟아홉 개의 서까래로 초가 누각을 새로 짓고
 앉았노라니 푸른 하늘에 떨어지는 폭포수가 훑날리네
 무릉교 주변은 신선이 된 최치원(崔致遠)의 골짜기요
 언덕 위의 꽃들은 객을 사절하는 원천이라
 한 움큼 잡아 움켜쥐니 바야흐로 현묘한 조화를 알겠고
 고을 경영 건설함은 사군(使君)[현감이 어질기 때문이지
 청컨대 문미 사이에 내걸린 세 글자 현액을 바라보
 함께 호산(湖山)에 머무르기를 만고에 전하고 있나니

草閣新成八九椽
 坐來飛瀑落青天
 武陵橋畔崔仙洞
 華子岡頭謝客泉
 搏攬方知造化妙
 經營實藉使君賢
 請看三字楣間額
 留與湖山萬古傳

김이만은 제천과 의림지와 관련하여 가장 풍부하면서도 실증적인 기록을 남긴 빼어난 민중 지향적인 작가였다. 특히 1969년에 발간된 『제천군지(堤川郡誌)』의 내용 가운데 의림지와 관련된 기록들은 거의 김이만의 문집인 『학고집(鶴臯集)』에 전거를 두고 있을 정도다. 검사해서 김이만은 홍류동 위쪽 지대에서 용추폭포를 자세히 관찰한 후에, 칠언절구인 <임호관폭(林湖觀瀑)>과 <임호관폭가(林湖觀瀑歌)>라는 칠언고시를 연달아 창작하기도 했다. 이들 두 작품 중에서 전자인 <임호에서 폭포를 보다> 한 수를 찬찬히 음미해 보기로 하자.

높다란 정자에 해가 지자 우뚝한 산 그림자가 깃들고
 한 줄기로 나는 듯 폭포수는 만경 들녘을 물결치게 하나
 뒤집어 쏟아도 지금까지 여전히 메마르지 아니하노니
 의림지 못물이 무량함을 비로소 알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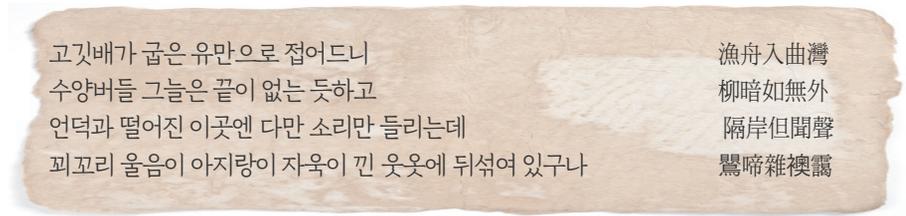
危亭落日倚嵯峨
 一道飛流萬頃波
 倒瀉至今猶未涸
 義林池水始知多

김이만은 석양이 질 무렵의 흥류정 정경을 잠시 묘사하다가, 곧장 시선을 맹렬한 기세로 활활 거리며 흘러내리는 폭포수로 옮겼다. 그리고 무한한 담수 역량을 과시하는 임호의 수원(水源)을 환기시켰다. 김이만이 남긴 <임호관폭>은 의림지를 제천의 생명수라고 일컬었던 이유를 절로 실감케 해준다. 처가가 제천이었던 낙정재(樂靜齋) 조석윤(趙錫胤, 1606~1655) 또한 <의림지에 기대어(倚林池)>라는 연작 오언고시 중에 한 수를 빌려서, “비록 7년 가뭄을 만났더라도, 일찍이 기황(飢荒)을 근심하지 않았다.”라며, 제천의 생명줄인 의림지의 수덕(水德)을 극구 예찬해 마지않은 사실이 있다. 이렇듯 의림지를 시재로 삼았던 작가들은 한결같이 여름철에 바라본 용추폭포의 “한 줄기 나는 듯한 폭포수”를 통해서, 의림지의 거대한 담수 역량에 고마움을 표하곤 했음을 알 수 있다.

**잊혀진 임상
(林相): ‘수양버들
만[柳灣]’**

한편 지난날 의림지에는 ‘수양버들 물굽이’로 직역되는 유만(柳灣)이라는 특별한 임상이 존재했다. 유만의 위치는 악성 우륵(于勒)의 전설을 간직한 연자암과 3색 동굴을 지나면 마주치는 굽이진 구역으로, 의림지의 놀이 공원인 파크랜드 사이 지대다. 유만은 무성한 수양버들이 군락을 이룬 채 서식했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 생물학자는 의림지를 일러 “한반도 자연사의 변천 과정을 품고 있는 고문서(古文書)”라고 평한 바가 있는데, 이 수양버들만큼 의림지와 함께 오랜 역사를 공유해 온 서식 개체도 드물 것이다.

이 같은 유만의 존재는 17세기 후반에 남인 문단의 종장으로 평가받았던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 1633~1709)가 지은 아래의 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물론 위 시는 유만에 찾아든 늦봄의 정취를 읊조린 것이나, 더욱 농밀해진 그늘로 인해 탐방객들에게 아득한 시원함을 선사했을 여름철 한때를 상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지금은 이곳의 수양버들이래야 겨우 십수 그루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 위주의 제림(堤林)으로 세인들의 관심이 완전히 전이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서우가 <김밀양봉지제천십육경(金密陽鳳至堤川十六景)>이라는 제하의 연작시 형식으로 창작한 위의 시는, 태고적부터 줄곧 의림지와 역사를 함께 해왔던 수양버들의 존재감에 대한 반추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애초 의림지는 수양버들 가득한 자연 연못에서 점차 진화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형 제언(堤堰)이자 호수[林湖]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시원함이야 유만이나 의림지보다는 에어컨 냉방이 갖춰진 실내가 더 나은 시대로 돌변한 지도 오래전의 일이다. 이제 여름철로 접어드는 의림지는 사색과 명상을 즐기는 정적인 교양인이 애호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연치유’라는 말이 너무 횡행한 나머지, 의림지의 생태 환경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사람이 많이 찾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동요의 거대한 뿌리, 정순철

정민 (충북학연구소)

다시 부르는 정순철

올해는 우리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의암 손병희와 예관 신규식이 순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두 분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서울과 청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 시민에게는 잊히거나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삶을 짚어보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옥천 출신의 정순철이다. “방정환 있는 데 정순철 있고, 정순철 있는 데 방정환 있다”고 할 정도로 방정환과 함께 초기 우리나라 어린이운동을 이끈 이가 바로 정순철이다. 그는 작곡가, 성악가이자 음악교사로서 우리나라 동요 운동의 씨앗을 뿌렸다. 방정환과 정순철 뒤에 정신적 지도자이자 물질적 후원자로 손병희가 있다.

동요 작곡가로서 정순철은 윤극영, 박태준, 홍난파와 함께 우리나라에 근대 창작 동요의 씨를 뿌렸다. 나아가 정순철은 썩지 않은 동요의 뿌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위 작곡가들이 일제강점기 친일을 하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는 데 반해 정순철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도교소년회’, ‘색동회’ 등에서 방정환·손진태·진장섭·윤석중 등과 함께 어린이운동을 펼쳐 식민지 치하에서 억압당하는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동심의 건강성을 일깨우는 동요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의 척박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동요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무성히 번창할 수 있게 땅 속 깊숙이 뿌른 거대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업적에 비해 정순철이란 이름은 2006년까지 우리에게 낯설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중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이념 대립의 굴레에 묶여 정순철이란 이름은 거의 지워지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6년 이후 우리 지역 연구자와 신문, 옥천군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순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2011년에 도종환이 『정순철 평전』을 출간하면서 정순철의 생애와 음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고, 옥천 지역에서 ‘짜짜궁 동요제’ 등 기념사업을 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소원했다가 옥천군에서는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순철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그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기다리며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순철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옥천 청산에서 태어나다

정순철은 1901년 9월 13일,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310-1번지에서 어머니 최윤과 아버지 정주현 사이에서 태어났다. 정순철의 생애는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어머니 최윤은 동학(東學)의 2세 교조 해월 최시형의 딸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순철은 우리 근대사의 거대한 격랑의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동학군과 관군·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치열해지다가 1894년 말~1895년 초에 청산에서 해월의 가족들이 옥천 민보군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된다. 이때 최윤도 열일곱 살의 나이로 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당시 관아의 통인(通引)인 정주현과 강제로 혼인(婚姻)하게 된 것이다. 정순철의 어머니는 나라에서 금한 동학 죄인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그 죄인을 잡는 관(官)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순철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1902년 경 아버지 정주현은 새 부인을 얻었다. 이때 최윤과 정순철이 분가하여 따로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최윤과 정순철은 1909년 이후 손병희와 천도교측의 도움으로 서울 가회동에서 지냈다. 1909년 경 옥천역에서 화물간에 몸을 실어 가출하다시피 고향을 떠나기까지 정순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의 글을 통해 정순철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스럽지 못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질겁지 안튼 어린 시절! 언제나 쓸쓸하얏고 언제나 외로웠던 어린시절이였섯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 호올로 외로웠섯습니다. 누나도 업고 동생도 업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따듯한 사랑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부드러운 웃음, 자미스러운 말소리가 엿지도 그리웠섯는지 몰르든 그 시절이였섯습니다.

외롭고 쓸쓸히 하로 해도 서산을 넘고 외롭고 숲흠이 가득찬 어린이의 이 집에도 어둠의 밤이 찾아와서 팻알만한 기름불이 히미하게 끔벽이고 잇섯습니다.

꿈도 짧을 여름밤도 지나고 가을밤도 질어가면 뜰앞 감나무 마른잎이 우수수 흠어 지고 뒷산 속 솔바람소리가 새- 구슬히 우는 부엉이 울음- 달 밝은 밤 달을 시쳐 날라 가는 기력이 울음소리-

팻알같은 기름불 밑에서 버선 깎는 엄마의 청성구즌 군소리-

이러한 모든 밤이 주는 정경을 보고듯고 이 어린이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또 우울하얏섯섯을 것입니다.

(정순철, 「노래 잘 부르는 법」, 《어린이》 제11권 2호, 1933. 2.)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순철은 어린 시절에 누나도 동생도 없이,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고, 언제나 쓸쓸하고 외로웠다고 했다. 정순철에게는 실제 이복동생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글에서 누나도 동생도 없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역적’의 딸이라는 주변의 눈총과 억압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던 어머니의 처지, 그리고 그 딸의 자식이라는 굴레는 어린 정순철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연스레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을 것이다.

가회동에서 새롭게 시작하다

외롭고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정순철은 열 살 무렵 서울로 올라온다. 보통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어느 날 옥천역에서 서울행 화물열차에 몰래 몸을 실었다고 한다. 서울에 와서는 손병희의 도움으로 가회동에 어머니 최윤뿐만 아니라 해월의 남은 가족들과 모여 살게 되었다. 정순철은 보성중학에 입학하여 1919년 4월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하기 전 해인 1918년에 정순철은 한 살 아래인 황복화와 결혼하였다.

정순철에게 이 시기는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했던 지난 시절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게 된 새로운 출발점이자 미래를 위해 땅을 가는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된다.

정순철은 옥천과는 다른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냄으로써 물질적·정신적으로 옥천에 비해 안정되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손병희와 천도교에서 도움을 주었고, 동학의 2세 교조인 최시형의 가족으로 천도교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옥천에서 받았던 농촌과는 사뭇 다르게 존중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외할머니와 외삼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순철은 가족의 정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또, 보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을 것이다.

청소년기 정순철이 인연을 맺은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방정환이 아닐까 싶다. “방정환 있는 데 정순철 있고, 정순철 있는 데 방정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순철과 방정환의 인연은 각별했다.

그들의 만남은 방정환이 손병희의 셋째 사위가 되어 가회동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부터다. 방정환이 1917년 결혼했으므로 시기는 그 언저리가 될 것이다. 이 둘은 공통점이 많았다. 방정환이 정순철보다 두 살 위로 그 둘은 나이도 엇비슷하고, 결혼도 한 해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했다. 정순철만큼은 아니지만 방정환도 어느 정도 천도교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방정환을 손병희의 딸과 중매한 권병덕은 손병희의 측근으로 천도교의 중진이었었는데, 권병덕과 방정환의 아버지 방경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다. 이처럼 공통점이 많은 청년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더욱이 천도교인으로서 같은 뜻을 품고 이를 실천할 동지를 만난 것이니 이 둘의 인연이 어찌 특별하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

1921년 5월 1일 김기전, 방정환 등의 주도로 천도교청년회 산하에 천도교소년회가 결성되었다. 여기에 정순철이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운동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동요로 어린이운동을 이끌다

정순철은 1922년 11월 8일 동경음악학교 선과에 입학함으로써 유학생생활을 시작한다. 이 학교에는 본과, 사범과, 선과 등이 있었는데 정순철이 입학한 선과에서는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창가 등의 실기를 주로 배웠다. 정순철은 여기서 창가를 전공하였다.

이 시기는 작곡가로서, 어린이운동가로서 정순철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정순철이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했다는 점이다. 정순철이 유학하던 당시 동경음악학교는 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독일인 교수가 강의할 정도로 서양 음악 강의 수준이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 정순철이 충격을 받기도 하였겠지만, 그에 대한 반동으로 더욱 공부에 열의를 가졌을 법도 하다. 어렵게 온 유학이므로 어떻게든 더 공부하여 전문적인 음악인이 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이 시기가 정순철에게 의미 깊은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같이 한 것이다. 자기보다 앞서 일본 동양대학에 유학을 와 있는 방정환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국어린이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1922년 10월 경부터 방정환은 색동회 창립을 준비하며 같이 할 인물을 찾는다. 이때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진장섭, 고한승, 조재호, 손진태, 정병기, 정순철, 윤극영 등이다. 세 번의 준비모임 끝에 이들은 1923년 5월 1일에 색동회 발회식을 한다.

이에 앞서 3월 20일 천도교소년회에서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아동잡지를 발간한다. 여기에 정순철과 윤극영이 동요작곡가와 필자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발족된 색동회는 어린이사와 공동으로 전조선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천도교교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 지도자 대회였다는 점이 특별하며, 당시 어른을 상대로 한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키우려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점 또한 의미가 깊다.

정순철은 색동회의 창립과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창립 준비부터 소년지도자대회 준비와 진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참여하였다. 정순철은 색동회 활동과 《어린이》잡지에 동요를 작곡하여 발표하고 글을 써서 동요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요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색동회 창립 모임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재호, 고한승, 방정환, 진장섭, 뒷줄 왼쪽부터 정순철, 정병기, 윤극영, 손진태.

한편, 정순철은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이후 천도교의 조직과 재정이 곤경에 처했고, 그의 실질적인 후원자였던 손병희도 1922년 5월에 별세하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거기에 1923년 9월 1일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 학교건물 일부가 소실되기도 하였고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 위협도 매우 컸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정순철은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정순철은 1924년에 일본에서 돌아와 다음 해인 1925년 봄부터 어린이날 행사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한다. 그는 4월 20일 저녁 열린 제3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 준비 회합에 방정환·정병기와 함께 색동회 대표로 참여하였다. 전국적인 규모로 준비된 1925년의 어린이날 행

사에 앞서 색동회는 어린이사와 함께 4월 29일 저녁 8시에 천도교 기념관에서 동화 구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정순철은 동요를 독창하였다. 이후 정순철은 색동회 회원들과 전국을 돌며 어린이운동을 펼쳐나갔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동요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요나 창가를 부르거나 기존의 창가 곡조에 가사만을 바꾸어 부르던 수준에서 벗어나 창작 동요의 시기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1924년에 윤극영이 최초로 창작 동요 「반달」을 작곡한 이후 정순철·박태준·홍난파 등이 동요 작곡에 매진하고, 이 창작 동요들이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에게 애송되어 가히 동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요 운동은 어린이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식 창가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본래의 심성을 키우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민족의식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이 있었다.

정순철은 동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라디오 방송에 동덕여고 합창단을 이끌고 출연하기도 하였다. 1929년 어느 날 경성방송국의 <어린이> 시간에 「우리 아기 행진곡」(짜짜꿍)이 방송되자 전국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중 정순철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다. 1931년 7월 23일 생애 최고의 동지라 할 수 있는 방정환이 서른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같이 해 왔던, 아니 반 이상의 삶을 같이 살았던, 그림자 같은 동지였던 방정환의 죽음이 정순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는 충분히 짐작된다. 5년 후 방정환의 유골을 납골당에서 망우리 묘소로 옮겨 안장할 때 정순철은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여러 밤을 새워 묘비를 세운다.

어린이운동의 대부라 할 만한 방정환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색동회 회원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그가 펼치고자 했던 어린이운동에 계속 힘썼다. 경성보육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순철은 정인섭, 이헌구와 함께 동극 단체인 ‘녹양회(綠陽會)’를 만들어 동극운동을 펼쳤다. 녹양회에서 정순철은 작곡을 하고 노래를 지도했다. 동극 역시 동요와 마찬가지로 아동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 지도 방법으로 효과가 있어서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가 되면서 어린이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다. 일제는 1934년 《어린이》를 폐간시키고, 1937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금지시키는 한편, 이후 어린이날도 폐지시켰다. 이처럼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어린이운동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색동회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39년 무렵 정순철은 두 번째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아들 정문화의 증언이나 윤석중의 글을 보면 정순철이 유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졸업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1945년 해방이 되어 색동회는 다시 어린이운동을 펼쳐나간다. 1946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정순철은 1947년에 윤석중, 윤극영과 함께 동요 창작 보급을 위해 ‘노래동무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에 모여 새 노래를 작사·작곡하거나 외국 노래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노래동무」라는 악보집을 발간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널리 알렸다. 이 모임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날까지 지속되었다.

목소리보다 정서가 중요하다

정순철은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운동을 이끈 운동가이기도 했지만 음악교사이기도 했다. 그가 음악 교사를 시작한 때는 1927년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학 기간을 빼면 한국전쟁 때 행방 불명되기까지 정순철은 약 20년 동안 음악교사로 살았다.

정순철은 1927년 4월부터 1938년 8월까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했다. 차 응렬에 의하면 이때 정순철이 합창 지도를 잘하였고, 멋쟁이 미남선생으로 '한국의 베토벤'이라는 별명으로 인기가 높았다 한다.



▲ 동덕여고 음악 시간(1929년)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정순철은 경성보육학교에서 다른 색동회 회원들과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보육교사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유학을 다녀 온 뒤인 1942년에는 중앙보육학교(중앙대 전신), 1947년에는 무학여고, 1948년부터 1950년 9월 행방불명될 때 정순철은 성신여고에 근무했다.

정순철은 동요 보급을 위해 학교, 행사장, 방송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만큼 동요운동에 정성을 들였다. 그의 동요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동요를 대하는 그의 태도 혹은 정신 때문이다.

정순철은 작곡할 때 가사의 내용과 정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기계적으로 곡을 붙이기보다는 읽는 이의 정서를 환기하는 내용의 가사에 정서의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곡을 붙이고, 또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쳤다. 또, 정순철은 동요를 가르칠 때 목소리의 좋고 나쁨을 노래를 잘 부르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정순철은 목소리가 좋은 것과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이 있어서 듣기에 흉한 것이 아니라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가 작곡가로서, 또 음악 교사로서 시종일관 견지했던 음악관이 아닐까 한다.

정순철을, 그의 노래를 우리 곁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정순철은 성신여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학교를 지키고 있다가, 9·28 서울 수복 무렵 인민군으로 내려 왔던 제자에게 납북되었다고 알려졌다. 누구는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가족들은 9월 29일을 제삿날로 삼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납북도 죽음도 추측이고, 당시 집을 떠난 후 행방불명이란 사실만 확실하다.

그 이후 2006년까지 정순철이란 이름은 묻혀 있었다. 어린이운동의 선구자로 동요의 황금기를 열었던 동요작곡가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될 뿐인데 이념 대립에 희생되어 55년 동안이나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1988년에 납·월북작가 해금조치가 있었음에도 2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념 대립과 전쟁, 그리고 분단이 초래한 비극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순철은 동요 작곡가이고 동요 운동가였다. 어찌면 답은 동요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노래를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 피아노를 치는 정순철(1935년)

청주시민의 최초 극장, 앵좌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실내 공간을 기반으로 ‘대면’하거나, 관객이 ‘함께하는’ 데서 감동이 극대화되는 연극과 영화는 코로나 시대에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영화와 공연계는 비대면과 거리두기의 제약을 벗고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연과 영화라는 예술이 성립하려면 우선 ‘극장’이 있어야 한다. 근대적 양식인 영화와 연극은 실내 극장을 기반으로, 무대, 조명, 음향, 은막(반사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은이나 알루미늄을 칠했기에 은막이라고 부른다), 무대와 분리된 관중석 등을 요구한다.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극장의 존재를 새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일상 가까이에서 가장 친근하고도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서 대중 및 고급 예술을 접하게 해주는 우리 지역, 청주의 극장사에 관한 관심은 적다. 이창구 교수 등에 의해 일부 윤곽이 드러났지만, 지역 극장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충북 최초의 극장은 어디였을까. 충북의 수부였던 청주에 1914년 4월 일본인에 의해 운영된 덕영좌가 그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7년 대전에서 문을 연 대전좌와 천만좌보다 3년이나 앞설 만큼 전국적으로도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인 개인(德永增兵衛) 설립에 의한 것으로, 설비가 미미하고 공연 내용도 일본 취향이라 청주시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한다. 이러한 아쉬움이, 1916년 12월 15일 앵좌(櫻座, 앵좌극장이라 부르기도 함) 극장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앵좌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주읍의 소방조합이 관리하고, 신축과 이전은 청주읍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극장 대관 수익 사업을 통해 조합의 운영을 돕는 공적 기관 성격으로 출발한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

극장 앵좌는 1916년 12월 남문로 중앙공원 일대(당시 상생정)에서 개관했다가 시설 노후화로 이전·신축을 준비, 1923년 5월에 공사에 들어가 7월에 완료하고 남문로 1가(당시 본정 1정목)에 새롭게 문을 열어 앵좌2기를 맞았다. 장소 협소 문제 해결과 현대식 극장의 요구로 1937년 철당간에 인접한 청주극장이 개관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 앵좌는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의 가장 중요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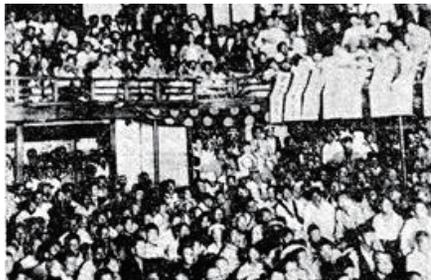
아쉽게도 이 앵좌가 있던 정확한 위치는 지금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이번에 이창구 교수가 1930년대로 추정해 왔던 청주극장(본정 2정목)의 개관 시기를, 당시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조선시보』(1937. 9. 25.)를 통해 개업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1937년 9월 25일로 특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창기 청주지역 극장의 역사는 덕영좌(1914. 4.)→앵좌1기(상생정, 1916. 12.), 앵좌2기(본정 1정목, 1923. 7.)→청주극장(철당간 인접한 본정 2정목, 1937. 9.)으로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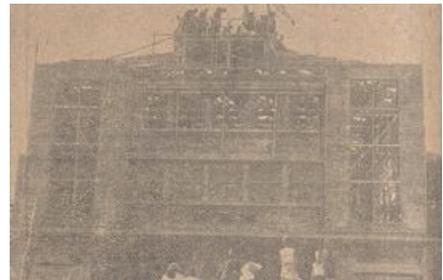
이 가운데서도 청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시기는 앵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앵좌’는 일본식(?) 이름으로 다소 낯설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근대의 극장 문화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까닭에 당시 전국의 극장 대부분은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였고, 극장 이름 끝에는 일본식 이름인 ‘좌(座)’를 달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사쿠라[櫻]’였을까. 당시 신문자료

를 보면, 주로 ‘앵좌극장’으로 칭해졌지만, 더러는 ‘사꾸라좌’, 청주의 유일한 극장이었으므로 ‘청주극장’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앵좌라는 이름은 이 극장의 신축과 운영방식을 처음 제안한 당시 지역 현병대장 ‘앵정(櫻井)소좌의 성자(姓字)를 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벚꽃은 일제가 청주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심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식재 운동을 벌였고, 이미 1920년대 신문에서는 봄소식을 청주 무심천의 벚꽃으로 전할 만큼 유명해져 있었다(물론 지금의 벚꽃은 해방 이후 베어냈다가 새로 심은 것이다). 1930년대에 청주고보를 나온 소설 『남부군』의 저자 이태의 수필 「무심천 세시기」에 따르면, 당시 지리 교과서에서는 청주를 ‘조선의 우에노(일본의 벚꽃 도시)’로 소개하고 있으며, 무심천 벚꽃이 만개한 시기만큼은 엄혹한 일제 치하의 고교생들에게도 잠시나마 낭만이 허용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보면 앵좌는 벚꽃의 도시였던 청주의 극장 이름으로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앵좌’라는 극장 이름은 청주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서울 용산에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앵좌에서 청주극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영화사에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는 배우보다 더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던 해설자(변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극장 내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다다미방에서 앉아서 보는 좌식 방식에서 좌석에 앉아서 보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좌식 극장이었던 앵좌 시절에는 입장 시 신발을 벗어야 했으므로, 입·퇴장 시에 상당히 혼잡하였고, 이 틈에 도난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였다고 당시 언론은 전한다. 좌석이 도입되면서 일시에 이러한 문제도 해결된 것이다. 앵좌와 청주극장은 모두 2층 건물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앵좌의 입장객을 500명 만석으로 표현했다가, 800명, 1,000명, 특히 영화 관람 시에는 최대 1,200명까지 수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좌식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청주극장 시기에 오면 정원이 800명으로 굳어지는데, 이는 극장 좌석 수가 1, 2층 합하여 800석 정도로 설계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일보 청주지국이 앵좌극장에 마련한 ‘독자위안영화대회’(영화상영)에 모여든 청주시민들 (조선일보, 1930. 5. 22.)



▲청주극장의 신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된 상량식 장면 (조선신문, 1937. 6. 11.)

청주극장은 보다 세련된 현대식 극장으로 위용을 드러낸다. 하지만, 오히려 청주사람에게서 멀어져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관 시점인 1937년 9월 두 달 전인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 일제의 군국주의가 정점으로 치달던 시기인 만큼 청주극장에서 허락되는 공연과 강연, 각종 문화 활동은 대부분 강요, 동원된 것이었다. 앵좌가 공공의 방식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청주극장은 일본인 개인 정상호웅[井上好雄]의 운영체제로 바뀌게 된다. 청주극장으로 비로소 온전한 우리 극장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청주시민으로부터는 멀어진 극장으로 변모해갔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청주시민들의 진정한 극장은 앵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앵좌는 어떤 공간이었는가. 극장의 이름을 띠고 출발한 만큼, 연극과 영화를 비롯하여,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공연이 행해진 공간이었다. 물론, 1931년 청주 공회당이 건립되기 전까지 지역의 실내 회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다양한 사회활동과 각종 행사가 진행된 다목적 공간이기도 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청주에서도 항일 독립운동, 사회운동, 청년운동이 본격화된다. 청주청년회 창립총회(1920. 6. 19.), 조선노동대회 충북지부 창립대회(1920.6.25), 신간회 청주지회 설립 총회(1927. 12. 22.) 등의 행사들이 모두 앵좌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앵좌극장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의 ‘국내 독립운동, 국가 수호 사적지’에도 올라 있다. 또한 각종 시민대회를 비롯하여, 청주청년회, 청년기독교청년회,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 청주○○구락부 등 다양한 청년단체의 회합이 수시로 이루어지던 청년들의 활동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지역 인사 및 외지 유명인의 다양한 초청강연회가 진행되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식과 정보가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앵좌극장의 역할은 그 이름에 걸맞은, 지역 유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기능한 점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극 활동이 진행되었고,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따라서 단순히 지역 극장사를 돌아보는 일을 넘어, 지역의 문화예술사를 살펴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왕을 담은 충북 지명전설

이상희 (충북대학교)

신화소를 역사와 습합해, 신의 세계가 인간의 시각으로 변모하는 것을 남긴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설화는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신성성을 담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명유래전설이다. 자신이 고장에 신성함과 우월함을 담은 모티브를 찾아 이름과 내용으로 전설화하는 것이다. 신화 속 자연에 ‘국가’ 개념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국왕이 신성함을 표방하며 전설화한다.

충북 지역 지명전설과 연계된 왕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전승된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인 백제에 문주왕, 성왕이 등장한다. 신라시대에는 혁거세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해공왕, 경순왕이 있다. 후백제 시대는 견훤에 관한 이야기가 전승된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이야기가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인조, 철종 이야기가 전한다. 삼국시대 이래 충북과 관련한 왕이 출생했다고 전하기도 하고, 진평왕과 선덕여왕처럼 피난 와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세종이나 세조처럼 질병 치료차 머물기도 하고, 공민왕처럼 행차 시 경유지로 하룻밤 묵어가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적을 지명전설로 전승한다.

국가별로 왕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백제는 문주왕, 성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명전설로 전승된다. 충주시, 옥천군 등지에서 전승되는 지명전설은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로 전투의 치열함, 피난 등을 담는다. 신라는 2대 임금인 혁거세부터 후대 임금 경순왕까지 다양하게 전승된다. 특히 진흥왕·진평왕·선덕여왕 등과 관련된 지명전설은 보은 지역에, 후기의 해공왕·경순왕 이야기는 청주·제천 지역에 남아 있다. 후백제의 견훤 이야기는 충주와 괴산 지역에 전승된다. 견훤의 출생담은 아래자전설(夜來者傳說)이 전형적인데, 괴산 청화산 이야기는 다른 유형이다.

고려시대에는 건국 시대와 후기에 집중되어 건국과 패망과 관련된 내용이 전승된다. 태조 왕건부터 공양왕까지 청주·보은·충주·단양·영동 등으로 전승되는데, 태조 이야기는 보은에, 공민왕 이야기는 단양에 집중되는 지역적 전승성을 보인다.

충북에는 조선시대의 왕 관련 지명전설이 가장 많이 전승되는데, 세조와 세종 이야기는 청주와 보은 지역에 집중 전승한다. 조선시대에는 시기상으로 가장 가까운 까닭인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지명전설로 살펴본다. 지명유래 전설을 모티브별로 구분하면, 자연물과 지형(역)으로 대분한다. 자연물과 습합한 지명유래 전설은 암석, 수목, 샘(물) 등이 대표적이다. 마을, 산 등의 공간과 습합한 지명유래 전설은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공간에 남은 왕의 이야기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양한 행적을 담았다.

먼저 자연물과 관련된 전설을 살펴보자.

영원한 자연에 왕을 담은 지명전설

자연과 함께 전해지는 왕 이야기는 거석, 거목, 샘 등이다. 지존인 왕과 연계된 이 자연물들은 하나로 이어진다. 바로 영원한 생명력이다. 원시종교시대부터 인간은 자연을 모방해 영원을 담았다. 오랜 시간을 단단하게 견디는 암석, 천상과 지상·지하의 삼계를 잇는 동시에 계절에 따라 생명 주기를 반복하는 거목, 생명이 탄생하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풍부해지는 물의 속성은 ‘생명력의 영속성’으로 상징된다. 유한한 인간의 오랜 영원인 영원성을 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상징성이다. 이런 생명의 영원함에 국가의 지존인 왕 이야기가 결합해, 지역의 자긍심과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영원성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모티브로 연계된 왕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까지 통시적이다. 신라시대 왕 이야기는 특히 보은 속리산의 거석과 함께한다. 진평왕과 선덕여왕이 피난 와서 깊은 불심으로 치성을 드린 속리산의 산호대, 배석대, 입석대 이야기가 보은지역에 전승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태조의 보은 속리산의 학소대, 세조의 속리산 문장대, 내속리 사내면의 은구석까지 거석과 관련한 왕 이야기도 보은 속리산에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 중 배석대 이야기를 소개한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일출(日出)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고 감탄하며 멀리 서울(慶州)을 향해 그 종묘(宗廟)의 은총을 기리는 뜻에서 세 번 절하고 다시 두 번 절하여 국태민안과 王室繁榮을 축수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에서 천둥 소리가 일며 돌봉우리[石峰]이 일제히 東南을 향하여揖을 하는 모양을 지었다. 그 후부터 이곳을 ‘왕실을 배향했다’는 이유로 돌봉을 拜石이라 불러 오늘에 전하고 있다.

(「전설지」, 218쪽)

608년에 왕비와 공주 덕만, 왕자 법승(法昇)이 속리산에서 국운의 번창과 왕실의 평안을 기도하였다. 덕만과 법승 남매는 아침마다 바위 위에서 경주 쪽을 향하여 절을 올렸다. 어느 날 바위 옆에 서 있던 우람한 바위가 덕만공주가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넘죽 숙인 후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 뒤부터는 배석대라 불렀다. (보은군청 홈페이지)

위의 배석대 이야기는 배석(拜石)이 주요 전승요소이다. 행위의 주체가 진평왕과 선덕여왕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지명 유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승의 주요 요소가 왕의 행적과 자연물-거석의 감응이기 때문이다. 설화는 왕과 거석이 결합한 이야기로 치성모티브를 차용해, 임금의 마음에 감동한 자연물로 서사가 전개된다. 따라서 인물이 바뀌어도 서사구조는 유사하게 전승된다.

수목, 삼계를 이어 성장하며, 사계의 주기에 맞춰 생명이 순환하는 수목 모티브와 결합한 왕 이야기는 조선시대 세종과 세조가 가장 많다. 세조의 보은 내속리 상판리의 정이품송, 괴산 청천 사당리의 객수목이 대표적이다. 세조와 세종이 속리산에 행차했던 역사적 기록을 기리기 위해 수목에 의미를 담아 전승하는 것이다.

물-샘의 생명성에 모티브를 둔 왕 이야기는 왕의 생명력을 돌워 건국에 일조한 이야기와 왕의 질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전한다. 샘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세종과 세조와 연계된 청주 초정리 약수가 대표적일 것이다. 종기와 안구질환으로 고생하던 왕이 청주 초정리 약수에 와서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는 널리 전승되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어 함께할 정도이다.

세종이 치료한 샘물은 진천군 문백면에도 전한다. 바로 어수천(御水泉) 이야기이다. 바위 중간에 샘솟는 물에 세종이 초정 가던 도중 이곳에 들러 물맛을 보고 칭찬했다하여 유래된 어수천은 풍습과 안질에 좋은 약수라고 한다.([『진천의 구비문학』, 320쪽.)

건국에 관한 이야기는 고려를 건국한 왕건 이야기로, 견훤과의 전투로 지친 왕건의 군사가 청주 방서동 대머리에 와서 진을 칠 때, 청주한씨 시조 한란(韓蘭)과 그 부인이 방정의 우물로 기갈을 해소해 기세를 회복하고 전력을 재정비했다는 방정(方井) 이야기가 전한다. 충청북도 기념물(제84호로 1990년 12월 14일 지정)이기도 한 방정은 한란이 대머리에 집성촌을 개촌한 연유다. 현몽으로 우물을 팠더니,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풍부한 생명력을 표현하며 이야기가 전한다.



▲청주 방서동 방정

왕의 행적을 담은 지명전설

자연물인 거석, 거목, 샘물 등에 왕 이야기를 담아 전승하는 지명전설보다 더 많은 분포로 전승되는 것은 공간에 관한 지명전설이다. 공간이라 함은, 마을, 골짜기, 사찰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산과 마을이다. 왕의 일화를 담은 지명전설의 구조는 긴 서사를 통해 시간과 인간의 감정을 전승하며 내용을 전하는 지명전설이 있는가 하면, 지명이 붙은 유래만을 간단하게 전달해 그 자긍심을 표현하는 구조의 이야기도 전한다.

현재 전승되는 지명전설은 세월에 따라 내용이 각색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와 습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명 유래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전승의식을 표현한다. 지명전설은 지형에 전승자의 상상력을 더해 전승되기도 하고, 지역과 인간의 역사를 담아 내용을 꾸리기도 한다. 지형을 본 따 지명전설로 전승되는 곳은 지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비해 지역(형)에 인물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는 인물이 역사적일수록, 위대할수록 서사구조를 확실하게 띠며 내용을 구성한다. 그중 왕과 관련된 지명전설은 역사적 사실에 전승자의 상상력과 전승의식이 결합되어 전승되는 지명전설이기도 하다.

왕과 관련된 충북지역 지명전설은 왕이 행차 경로여서 지나갔던 곳, 하룻밤 묵어 갔던 곳, 머물며 치성하며 수행하던 곳, 치료하던 곳, 혹은 죽음을 맞이한 곳이기도 하다.

왕이 행차 시 경유한 곳에 왕과 관련된 지명전설이 가장 많이 전승되는 왕은 조선시대의 세조이다. 세조의 속리산 행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천, 초정, 속리산 행차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는 행차하는 행적에 따라 곳곳에 지명의 유래를 남겼다. 보은 지명 유래, 대궐터, 말티재, 진터, 가마골, 교암, 마전사, 성암, 문장대, 정이품송 등이다. 자연물과 공간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보은지역에서 전승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조와 관련된 지명전설은 자연물과 공간에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세조 다음으로 지명전설에 많이 남은 왕은 세종이다. 청주의 주왕, 진천의 성평, 일산자리, 세습바위 등이 세종이 행적을 담은 지명전설이다. 세조와 연계된 정이품송과 보은의 유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정이품송(1940년대)

대왕이 탄 가마가 소나무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 걸린다’고 말하자 이 소나무 가지가 번쩍 들러 무사히 통과하였다 한다. 세조대왕께서 법주사에 들러 부처님전에 참배하고 불공을 드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난치의 병을 고치었다 한다. 이날 오후 4시경에 복천암을 출발하여 연송 부근을 지날 때 비가 내려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떠나실 때, 올 때도 신기하였고 갈 때에는 너에게 신세를 졌구나 하면서 정이품(正二品)의 벼슬을 내렸다 한다.

그리고 속리산에 와서 병을 고쳤으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보은(報恩)이라는 지명을 지어 주어서 그때부터 보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일설에는 법주사에서 1.7km 떨어진 곳에 목욕소가 있는데 세조대왕이 이곳에서 목욕할 때 문수동자(文殊童子)가 나타나 등을 밀어주고 난 뒤 난치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내 고장 전통 지키기』(보은군), 125~126쪽)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치성드리거나, 치료하거나, 나랏일로 시찰하거나 전쟁을 벌이는 등의 역사적 시간을 담아 전하는 지명전설도 있다. 충북지역에 머물면서 치성을 드린 왕은 주로 신라시대 왕들이다. 진평왕, 성덕여왕, 혜공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치료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세조와 세종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전승된다. 전쟁과 관련된 왕 이야기는 전쟁 중 피난을 온 백제의 문주왕과 성왕 이야기가 전한다. 문주왕은 충주 지역에 주로 전승되는데, 안립

동의 어림, 계족산, 문서등이 이야기가 전승된다. 성왕은 옥천 지역에 전승되는 구진벼루 이야기와 핏골 이야기가 있다. 고려시대 왕도 충북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피신한 이야기가 전승된다. 고려 후기 공민왕이 피난 온 보은군 마로면의 관기, 왕래재, 원왕골 이야기와 단양의 궁기 등 이야기, 영동 양산의 누교리, 영국사 이야기 청주시의 망선루 이야기가 전승된다.

성왕의 이야기는 전투 중 전사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성왕의 이야기 구진벼루[狗川]를 소개한다.

군서면 월전리(月田里)에 속칭, 구천 혹은 구진벼루, 또는 구전벼랑이란 곳이 있다. 이곳이 바로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사로잡혀 살해된 곳이다. 구진벼루는 옥천에서 약 4km, 군서로 이어지는 도로변인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서화천이 흐르고 있다. 이 일대에는 전쟁에 관련된 지명이 많이 등장, 옛 격전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옥천에서 구천으로 향하는 길목에 진터벌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염장(斂葬)이요, 그 다음은 ‘말무덤고개’, 이 고개에서 굽어보면 구천이 된다. 구천의 건너편 지명은 군진(軍陣)이 되고 그 대안(對岸)에 솟은 산은 칼대[劍筆]쟁이 서쪽에는 무중(武中)골이다. 구천 동편 산에는 산성산(西亭里) 성지가 있고, 약 3km 지점 군북에는 고리산이 자리잡고 있다. 한 마디로 천연의 요새라 할 수 있다.

6세기 중반 성왕은 고리산에서 신라군과 대치하고 있는 태자 창(昌)을 도우러 보기(步騎) 5천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렀다. 그때는 음력으로 7월이 되었으므로 구천의 물이 장마로 한창 불어났다. 군사들은 밤이 되었으므로 쉽게 내를 건널 수 없었다. 이때 신라 복병의 습격을 받았다. 군사들은 혼란하여 대패했다. 성왕은 좌평 4명과 함께 생포되어 신주(新州)의 도독인 김무력(金武力) 장군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성왕은 “내 목을 베거든 고리산에 있는 태자 창에게 보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목을 내밀었다. 신라 군사들은 성왕의 목을 잘라 포(布)에 싸 고리산성으로 보냈다. 부왕의 시신을 받은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리산성을 버리고 퇴각했다. 이후부터 백제는 옥천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 고장 전통 지키기』(옥천군), 1982, 81~82쪽/ 317~318쪽.)

유한한 인간은 무형의 자산에 인간의 삶을 남기고자 전승하기도 한다. 또 누대세거하는 터전에 인간의 위대함을 빌어 고장의 가치를 드높이기도 한다. 가장 높은 존재인 왕을 빌려 자신의 세계를 이루는 자연물, 골짜기, 마을 등에 자긍심을 표방한다. 그 전승의식과 이름이 우리에게 지명전설로 남아, 지금도 우리는 그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다.

충북의 영화 이야기 2

윤정용 (문학평론가)

영화 속 도시 이야기

영화는 공간 프레임에 시간 띠를 돌려 만들어지는 매체다. 대부분의 영화는 실제적 배경을 가진 공간에 시간을 담아 서사를 이끌어간다. 영화의 배경은 실제 공간일 수도 있고 세트나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영화의 배경이 실제 공간이든 가상의 공간이든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에서 공간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다. 즉 영화 속 공간이 구체화하는 인물의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주체 의식을 외형화하는 과정, 상황과 사건의 상징화 등이 더 중요하다. 영화의 공간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물리적 공간이자 동시에 시간성을 내포한다. 영화적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며 시대상을 창출하는 메타적 장소로 기능한다. 영화적 공간은 표피적 현실 그 자체를 넘어 시대정신과 사회·문화의 상호 관계가 형상화된 실체의 환영이다.

도시는 영화에서 중요한 공간을 차지한다. 도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적·경제적 활동의 중심 공간이다. 『영화로 읽는 도시 이야기』(2019)에서 서성희는 도시의 다양한 순간을 담은 영화들은 아름다운 도시, 넓은 도시, 안전한 도시, 낙후된 도시, 정의로운 도시, 행복한 도시 등 당대 도시의 사회적·시대적·경제적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배경 이상의 역할을 해왔고,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화 속에 재현된 도시는 영화가 당대의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이자, 영화 속 인물들이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관객이 영화를 통해 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기대가 투영된 방식이기도 하다. 도시의 끊임없는 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영화는 더 많은 도시의 더 다양한 측면을 담아낼 것이다.

백정우는 『영화, 도시를 캐스팅하다』(2019)에서 “급격화된 도시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억압 받은 수많은 도시민의 삶을 그린 영화들을 다시 보는 일이야말로 1970년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지침서 중 하나”라고 논평한다. 그에 따르면 조국 근대화와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부조리한 관습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영원한 타자로서 변경을 맴돌다 좌절한 많은 이들의 삶과 아픔은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시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군사독재 시절, 영화는 때로는 유쾌하고 통쾌하게, 때로는 페이스스 가득한 처연함으로 도시의 병폐를 담아냈다. 하지만 정작 민주화 이후 도시는 영화 담론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사전적으로 도시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가리킨다. 도시는 통상적으로 시골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런데 ‘많이’라는 부사는 상대적이기에 많다는 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예컨대 청주는 서울과 비교하면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제천과 비교하면 많다. 제천 또한 청주와 비교하면 인구가 많지 않지만 옥천과 비교하면 많다. 옥천 또한 마찬가지로. 이처럼 ‘많이’라는 부사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도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의 도시의 상대적 정의와 개념을 받아들여 제천, 옥천, 청주를 편의상 모두 도시로 명명한다. 먼저 제천, 옥천, 청주가 주요 배경인 영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후 영화 속에서 보고 싶은 충북의 모습을 재연하려 한다.

제천, 미래를 꿈꾸다

제천이라는 도시를 네 글자로 나타내면 '청풍명월'일 정도로 제천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천 하면 한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는 실존 인물이 아닌 영화 속 인물로서 다른 아님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2009)의 '구경남'이다. 최근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상수 영화 속 남자들은 한결같이 열등감과 피해의식,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자신의 무능력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비겁하고 짜질하다. 구경남도 그런 비겁하고 짜질한 그들 중 하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영화감독 구경남이 겪은 소란스러운 백일몽을 홍상수 특유의 냉소로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한 장면. 영화감독 구경남은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었지만 늘 그렇듯이 영화인들과의 술자리를 핑계로 영화제 심사는 뒷전이다. 참고로 사진 속 가운데 인물은 카메오로 출연한 소설가 김연수. 구글 이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로케이션 장소는 제천 시내와 영상미디어센터와 청풍리조트다. 상영관인 TTC와 제천 인근에서도 시퀀스 몇 개를 찍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화제 풋말과 인물의 연술이 없다면 영화 속 공간이 제천인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남의 도착 시퀀스에 제천터미널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걸로 끝이다. 이후로는 방과 식당과 극장이 주요 공간인 탓에 제천이라는 지역성이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라는 지역성이 영화를 채운다. 심지어 제주도로 도망친 경남의 모습에서 그가 여전히 제천에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 제천을 이야기할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보다 <박하사탕>(1999)을 꼽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영화의 백미인 철로 시퀀스는 제천 진소마을에서 촬영했다. 테스트에서만 스태프의 도움이 있었을 뿐 실제 촬영에선 기차가 가까이 오는 줄도 몰랐을 정도로 주연 배우 설경구가 연기에 몰입해 얻어낸 명장면이다. 영화 개봉 이후 사람들은 철로 신을 찍은 장소를 찾았다. 탐방객이 몰리자 하루 한 번 완행버스가 다니던 벽지에 교통편이 증편되었다. 숙박시설도 생겼고 현재는 전원주택단지도 들어섰다.

영화의 힘에 놀란 제천시는 로케이션 장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 도시 산업지형도가 변하고 제천은 영상산업도시를 꿈꾸기 시작했다. 대형복합상영관 하나 없는 도시가 영화 인프

라가 전무한 지역이 영상산업도시라는 미래를 꿈꾸었고 마침내 그 꿈이 실현되었다. 그 꿈의 결과물이 바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 경남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다. 청풍명월이 제천의 현재라면 영상산업도시는 제천의 미래다. 그 미래의 시작이 <박하사탕>이었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미래로 향하는 현재다. 그 미래를 향해 지금도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천에서 촬영되고 있다.

옥천, 현재를 붙잡다

옥천을 로케이션 장소로 하는 영화 <용순>은 열여덟 살 여고생 용순의 철없지만 순수하고 용감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유쾌하면서도 가슴을 아리게 하는 소동극이다. 그녀의 질주하는 사랑과 우정이 영화의 전부일 정도로 영화는 단순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친엄마를 병으로 떠나보낸 용순은 불행하고, 불우하고, 불량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통을 단절한 채 술로 허송세월한다. 미래가 희망적이지도 않고 꿈조차 없을 것 같은 용순은 여름을 견디기 위해 육상을 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 준 학교 체육선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윽고 그와 연애를 시작한다.

그러나 용순에게는 모든 게 험난하기만 하다. 연애 당사자인 체육 선생은 마음이 떠나 그녀에게 종말을 고하고 있었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대화가 없었던 아버지는 갑자기 외국인을 새엄마로 들이겠다고 폭탄선언을 한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애를 지키기 위해 체육 선생, 그리고 그를 빼앗으려는 영어 선생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 그리고 새엄마 에바와 싸워야 한다.

결국 그녀는 사랑도 잃고 엄마도 잃었다. 영어 선생과 육탄전을 벌이며 체육 선생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에바에게 엄마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 문희와 박규,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새엄마 에바 덕분에 체육 선생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떨쳐내고 다사다난한 여름을 마무리한다.

영화 <용순>의 단조로운 플롯을 지탱하는 힘은 감독의 특별한 재능에서 비롯된다. 특히 귀에 착착 감기는 찰진 충청도 사투리가 잘 어우러진 대사는 더욱 도드라진다. 감독은 대전을 중심으로 천안과 옥천 일대에서 사용되는 사투리로 구성했다고 밝힌다. 그에 따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구사하는 사투리는 농도와 질감이 다르다. 학교에서의 대화는 표준말과 사투리가 섞이면서 언어에 민감한 사춘기 여고생의 정서를 잘 반영한다. 그 때문에 사투리는 투박하고 어눌하지만 서툴지도 과하지도 않다.

전술했듯이 영화 <용순>은 옥천 일대에서 촬영했다. 사실 옥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제왕 김탁구>(2010)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 정도로 이 드라마는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고 촬영지인 청산면에는 수많은 관광객에 몰리기도 했다. 누군가는 시골 할머니와 도시 손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집으로>(2002)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옥천을 대표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 그 목록에 <용순>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영화는 옥천의 아름다움을 맘껏 펼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 용순과 그녀의 친구가 장래 희망을 나누는 시퀀스와 엔딩에 롱 샷으로 등장하는 강가는 옥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영화 <용순>의 한 장면. 옥천의 잔잔하면서도 맑은 강물은 용순 같은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를 잘 대변해준다. 구글 이미지.

아름답고 아늑하고 인상적인 엔딩에 등장하는 영화 속 강가는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대청댐 상류다. 감독 신준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옥천에 종종 나들이를 왔었다. 지금껏 살아오며 난 옥천만큼 수심이 얕으면서 탁 트인 경치를 자랑하는 장소를 본 적이 없다. 비록 사춘기라는 격랑의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옥천의 잔잔하면서도 맑은 강물이 용순 같은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를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감독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로케이션 장소는 의심할 바 없이 완벽했다. 온통 답답한 환경에 둘러싸인 용순과 친구들에게 맑은 강물은 학창 시절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리란 믿음의 발로였다. <용순>이 그려내는 세상은 높은 담 너머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지만 그해 여름 뜨거웠던 용순의 분투는 삶의 자양분으로 남을 것이다. “뭘 하나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움켜쥐기 시작했고,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 질서를 넘어서려던 열여덟 용순은 그렇게 여름을 견뎌냈다. 영화 <용순>은 단순히 그녀의 성장담으로 그치지 않는다. 어쩌면 ‘용순의 여름’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뭘 하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또 그녀처럼 삶을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되는대로 건디고 있다.

청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다

예전에는 연초제조창이었고 현재는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청주영상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다. 청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 목적은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장소 마케팅·홍보를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 지역 내 영상물 제작에 따른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영상인프라인력·기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청주 영상산업 진흥, 청주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영상관광산업 성공모델 창출 등이다. 사업내용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시나리오 맞춤형 청주 촬영지 발굴 및 행정적 지원, 영상물 제작사 유치 및 촬영지 홍보를 위한 로케이션 팸투어,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 촬영지 관광투어 상품 개발, 청주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대외 교류사업 협력 등이다.

청주영상위원회는 ‘영상문화도시’라는 청주의 꿈을 품고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하지만 영상문화도시를 향한 청주의 꿈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최고시청률 49.3%를 기록한 앞에서 언급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천만 영화 <베테랑>(2015), 솔한 명대사로 관객의 뇌리에 각인된 영화 <신세계>(2013) 등 수많은 작품이 청주에서 촬영되었고, 그 작품들은 ‘영상문화도시 청주’의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로케이션 in 청주’라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고 추천 촬영지까지 소개하고 있다. 소개한 추천 촬영지는 특정 시설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업무, 도로, 교통, 공공, 생활, 영업,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관광, 종교 시설 등 다종다양하다.

청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6월 현재 기준 청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카인과 아벨>(2009)을 시작으로 <돼지의 왕>(2022)에 이르기까지 총 81건의 게시물이 포스팅되어 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다. 홈페이지에 포스팅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하고 기간을 넓힌다면 청주에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수암골, 청남대, 청주국제공항, 성안길, 무심천 등을 랜드마크로 삼고 있는 청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6, 70년대와 현대를 넘나들며 앵글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청주영상위원회는 2018년부터 매년 ‘영화와 함께하는 11월’이라는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다. 청주영상위원회가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한 작품을 비롯해 청주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들을 엄선해 시민과 함께 무료로 관람하고 감독 등 제작자들이 직접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작품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와 함께하는 11월’은 청주영상위원회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상영한 영화는 <비행>(2018), <너의 결혼식>(2018), <동물, 원>(2018), <로망>(2019), <가을 이야기>(2018), <바람이 전하는 말>(2019), <칼국수 먹으러 가는 길>(2018), <두번할까요>(2018), <디바>(2020), <어린 의뢰인>(2019), <런보이런>(2020), <오!문희>(2020), <시동>(2019), <우리집에 왜 왔니>(2019), <정희>(2019), <구절초 필 무렵>(2019), <배아기>(2019),



▲ 영화 <로망>의 한 장면. 청주의 곳곳을 주요 배경으로 촬영한 이 영화는 ‘동반치매’라는 새로운 소재로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구글 이미지.

〈봉명주공〉(2020), 〈아이들은 즐겁다〉(2020), 〈앞니〉(2020), 〈청대 테스형〉(2020), 〈난 김치가 싫어〉(2020), 〈슈퍼히어로〉(2020), 〈이웃사촌〉(2020)〉 등으로 상업영화, 독립영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영화 〈로망〉은 영상문화도시 청주를 구현하는 청주영상위원회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로케이션 지원한 작품으로, 유난히 뜨거웠던 2018년 여름 크랭크인 해 청주의 곳곳을 주요 배경으로 촬영했다. 〈로망〉은 무심천, 동물원, 청주대학교, 청주의료원 등 청주의 익숙한 공간과 장소가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무심천은 노부부의 애뜻한 로맨스를 상기시키는 영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영화를 제작한 이창근 감독 역시 매자가 치매에 걸려 찾는 곳도, 두 사람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찾는 곳도 무심천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았다.

영화 관계자들은 청주는 한적한 중소 지방 도시를 배경으로 한 현대극 촬영지로 안성맞춤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청주시의 예산을 받아 청주대가 운영하는 영화촬영지 정보사이트 ‘레디~청주’도 드라마·영화 촬영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청주대는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역 내 영화촬영지 개발 및 DB구축,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CF 등 촬영 유치, 영상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펴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드라마·시나리오 작가, 감독, PD 등 30여 명을 초청해 팸 투어를 기획했다. 충주 조정경기장, 충주호, 청주 수암골, 오픈세트장이 설치된 옛 청주연초제 조창 내 동부창고, 진천 농다리 등을 둘러보았다. 드라마·영화 촬영 유치를 통한 한류 관광상품 및 활성화, 충북 영상산업의 미래 비전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영상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홍보와 이미지 쇄신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충북이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의 제작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로서 충북의 장소성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영상문화도시의 방점을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공간, 다시 말하면 청주영상위원회의 사업명처럼 ‘로케이션 in 청주’ 또는 ‘로케이션 in 충북’에 찍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이미지의 쇄신을 꾀하려 한다. 이는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다름이 아니라 ‘로케이션 장소로서의 충북이나 청주’가 아니라 ‘콘텐츠로서의 충북 또는 청주’다. 어쩌면 이는 개인적인 아쉬움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예전에 보았던 자연스럽게 장물(영화감독)의 여러 영화들이 떠올랐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썼듯이 장물 영화는 형식적으로는 ‘장소성’(locality)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사막과 초원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몽골의 유목민을 그린 〈경계〉(2007)와 감독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던 탈북자 이야기인 〈두만강〉(2009년)은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강렬하고 묵직하면서도 보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조선족 출신인 그는 한국으로 건너와 쌍둥이처럼 연결된 연작 영화 〈이리〉(2007)와 〈중경〉(2008)을 내놓는데, 그때부터 ‘장소성’은 그의 영화적 특장(特長)이 된다.

개인적으로 충북의 어느 곳이든 영화의 로케이션으로 그치지 않고 장률의 영화처럼 도시(장소)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영화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영화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충북의 콘텐츠 자원으로는 뭐가 있을까? 깊고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신채호, 정지용, 직지, 무심천, 속리산, 남한강……, 수많은 자원들이 떠오른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콘텐츠 자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미 영상 작업이 되었거나 작업 중인 것도 있을 것이다. 영상문화도시의 성공이 관건은 영화적 콘텐츠의 유무가 아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일상적인' 콘텐츠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또 얼마나 '창발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역사가 예거하듯이 콘텐츠의 창발적 개발은 어느 날 갑자기 불세출의 한 천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백정우, 『영화, 도시를 캐스팅하다』, 한티재, 2019.

서곡숙 외, 『영화로 읽는 도시 이야기』, 르몽드, 2019.

장우석, 「장우석의 電影雜感 2.0: 재중동포 장률 감독의 '도시 3부작」, 『영남일보』

2020.09.25.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923010003481>

청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fc.com.kr/home/main.php>

07 충북학 연구소 소식

2022년 충북학연구 사업

『충북학』 제24집

지난 3월 『충북학』 제24집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원고는 충북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비논문(문화초점, 인물담구, 자료소개 등)이며 10월 30일까지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된 원고는 게재심사를 거쳐 『충북학』 제24집에 수록하여, 12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충북 역사문화 사료 번역 사업

충북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지역 관련 사료, 문집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三竹詞流』, 『忠北の文化と人』, 『忠北北部 五郡産業紹介誌』를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삼죽사류』 조선 후기 제천지역에 거주했던 시조시인 삼죽 조항(趙樞 1803-?)의 시조집이고, 『忠北の文化と人』은 1928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안제하당(安齊霞堂)이 충북 지역의 당시 상황과 인물을 정리한 책이다. 『忠北北部 五郡産業紹介誌』는 1932년 한흥(韓興)이 당시 충북의 북부 지역 과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의 산업 현황을 정리한 책이다. 이들 자료는 과거 충북의 상황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들 자료의 번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번역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충북학 미래 기획 사업

충북학 미래 기획 사업은 충북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도출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현재 '충북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실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충북 지역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충북 문화상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이 사업은 충북의 문화 요소를 조사하여 이를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로 정리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사라져 가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복을 빌고 결속을 다지는 행사 중 하나인 동제(洞祭) 자원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충북 보은군 지역의 동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지도와 결합하여 웹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충북학연구소에서는 현재 위 사업 이외에 충북학 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충북학포럼', 지역과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기 위한 '충북, 충북인이야기', 충북에 대해서 알아가는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아카데미', 충북학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충북학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충북학 제24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발간 『충북학』 제24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편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2022년 10월 30일
게재심사: 2022년 11월 15일
결과통보: 2022년 11월 16일
발간시기: 2022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2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